

###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전곡 연주 도전



권혁주 독주회, 토요일 여수 예술마루  
11월 6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1824년 제노바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어떤 이는 그를 마법사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악마라 했으며 그나마 정상적인 이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불렀다.' 기사의 주인공은 고도의 테크닉을 자랑하며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던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파가니니의 대표곡인 '카프리스 24개 전곡 연주'에 나선다. 11월 2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술마루, 11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반주 독주곡인 '카프리스'는 다양한 연주기교가 총망라된 곡으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며 마지막 24번은 각종 CF 등에 사용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다. 특히 연주하는 데 큰 에너지가 요구돼 전곡 연주회를 감상하는 건 흔치 않은 기회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19세였던 2004년 칼 세 바티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후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러시아 파카니니 콩쿠르 우승, 애플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및 카프리지오스 최고연주자상을 수상했으며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금호아시아나홀로리스트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2회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했다. 1998년부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고악기 임대 사용자로 선정돼 파다니니 파르마(1763년산)를 연주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2-2055-1556.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예술극장 즐길 준비 됐나요

11월1일~12월6일 레지던시 쇼케이스+파티

태싯그룹·광주연극협회·언더 뮤지션 등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 예술극장에 올려지는 작품들에 관심이 높다.

다양한 작품들을 개발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국내외 예술단체들의 협업을 통한 창작 공연 발굴을 위해 지난해 '광주창작 레지던시'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 선정된 단체·개인은 '태싯그룹', 노경애 작가, 광주연극협회 등 모두 3팀. 선정단체들의 작품개발 과정을 공유하는 쇼케이스 행사가 열린다. 특히 광주 예술 커뮤니티 교류의 장을 지향한 '파티' 프로그램까지 함께 열려 눈길을 끈다. 쇼케이스와 파티 행사는 모두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다.

11월 1일 쇼케이스를 갖는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작업을 펼치고 있는 '태싯그룹'의 '로스(LOSS)'다.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라는 소리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번식하는 지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댄스'



'야마가타 트윅스터'



'무키무키만민수'

5일에는 퍼포먼스, 디자인,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노경애 작가의 '가로 세로' 프로젝트가 선보인다. 4명의 서울 작가와 5명의 광주 예술인이 어우러진 작업이다.

15일에 열리는 마지막 쇼케이스는 광주연극협회의 '스토리 위드 광주(Story with Gwangju)'다. 광주 예술가와 주방장, 이발사, 택시기사 등 시민이 함께 광주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자리다. 시민들이 참여해 편지를 쓰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연극협회장인 정순기씨가 총감독을 맡고 원광연, 양태훈,

박영진, 김종필, 송정우씨 등 연극배우들이 결합했다.

추진단은 개관준비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예술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파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1월 1일 열리는 극락파티는 언더그라운드 음악 파티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인들의 조합인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오대리, 무키무키만민수, 단편선과 선원들 등이 출연한다.

15일 광주연극협회 쇼케이스 이후에 열리는 '광주예술인 파티'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쓴 편지를 대형 풍선을 이용해 하늘에 띄우는 퍼포먼스 후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다.

29일에는 '19금 퍼포먼스 릴레이 파티'가 열린다. 아티스트 홍성민과 예술단체 포도(podo)가 준비하는 파티로 6시간 동안 서울과 광주 지역 작가들이 시각예술, 사운드아트, 무용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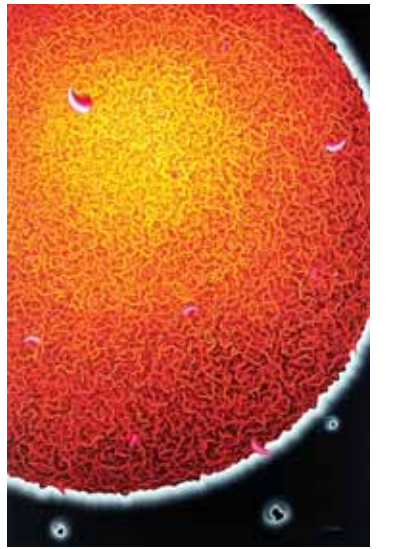
마지막 파티는 12월 6일 열리는 '아시아 예술극장 2013 Farewell 파티' 행사다. 올해한 아시아예술극장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들과 관객이 함께 즐기는 흥겨운 파티다. 문의 062-410-361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욕망의 성'

신창운전 다음달 2~13일 롯데갤러리

동그런 원형의 형상에 실타래가 뒤엉켜져 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수한 구불구불이 적색, 청색, 녹색의 색감으로 요동치거나 흘러내린다. 인간의 의식이나 심정을 상징하는 심장 형상의 하트 패턴은 선명한 기운으로 그 덩어리를 과시하는데, 날카로운 뿔이 패턴을 뚫고 나오기도 한다.



'욕망'

롯데갤러리는 11월2~13일 서양화가 신창운씨를 초대해 '욕망의 성(The planet of desire)'전을 연다.

작가는 인간의 욕망에 관해 이야기한다. '욕망의 행성'으로 직역되는 전시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욕망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그것이 초 현실 속에서만 존재하는 심상의 영역이 아닌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에서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신씨는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인턴십, 인도 국립박물관 인도 아트 & 문화 코스를 졸업했다. 하정웅 청년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금호갤러리 영아티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변 아침'

### 시간 속 자연의 섭리

서상범 개인전 다음달 6일까지 갤러리 D

시간 속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 사진작가 서상범씨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서씨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갤러리D에서 '자연의 연주'를 주제로 지난 10여년간 자연에 대한 기록을 담은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서씨는 자연 속에서 목격되는 경의와 신비의 순간, 섭리를 자신만의 색과 감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 안에서 공존하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은 하모니를 이룬다.

강 주변을 휘감는 물안개와 둔치를 감싸고 있는 크고 작은 묘목의 조화를 담은 '강변 아침'과 같은 작품에서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해남 출신으로 목포교육대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6년 36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했다. 전남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순천미술대전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선 및 특선했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토요일 전일빌딩양

'잊혀져 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나로 뭉쳤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2013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이 11월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앞 도로(전일빌딩~금남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시대 청소년들의 삶을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100인 토크 ▲청소년 천막클럽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기획전시 ▲동구 청소년문화존 해단식 ▲청소년 독립문화제 등으로 꾸며진다. /김경민기자 kki@

### 김현의 문학세계 돌아보다

문학과지성사, 오늘 목포문학관서 심포지엄

한국 문학평론의 새 지평을 연 목포출신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문학과지성사는 31일 목포시 목포문학관에서 김현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계간 '문학과사회'의 전신인 '문학과지성'의 창간을 주도한 문학평론가 김현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연·박성준 시인과 소설가 김성중씨, 문학평론가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한편 김현과 함께 '문학과지성' 창간을 주도한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은 김현과의 인연을 소재로 회고담을 들려준다. 문의 061-270-8400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 (주)오천경매투자

직통, 010-3605-5000 T, 52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예약 필수 / 전화상담 사절

1.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며  
1대1 개인 전수입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실전고수, 최 선규 드림

2. 경매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을 모십니다.

담보는 입찰 할 물건  
또는 경매 받은 물건입니다.

이자율은 년 15% 이상이며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입니다.

채권 보장은 등기 또는 제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최대한 높은 이자와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이사, 김 제우 드림

3. 부동산을 경매로  
사실 분을 모십니다.

원하는 물건을 싸고  
안전하게 낙찰 받아 드립니다.

법적 비용(낙찰가 1.5%)외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입찰부터 매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제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최 숙경 드림